

##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종교/폭력과 기독교 평화주의 연구\*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 I. 서론
- II. 현대의 종교/폭력의 세계화 문제
- III. 비폭력무저항주의에서의 폭력과 평화
- IV. 종교/폭력 세계화에 대한 비폭력무저항주의의 대안적 평화 원리
- V. 결론

---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8962)

---

• ABSTRACT •

---

Ethics of Community for the Law and Religion: A Study on the Religion  
Related to Violence and Christian Pacifism

Yoo, Kyoung Dong

It is questionable whether religion is related to violence and the target or attacker are motivated by religious doctrines and texts. Religion is thought to be against violence and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The 9/11 terrorist attacks and recent Charlie Hebdo attack in Paris, however, have captured world wide attention and religion is suspected of the accomplice to the violence.

In this regard, Christian non-violence pacifism is not only incompatible with violence, but also important in the theological and ethical dialogue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those who face political and economical crises. And we are also called to equip ourselves with high moral standard in the world of violence.

In the discussion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non-violence and the current violent issues, the principles and doctrines advocated by Quaker, Mennonite, Howard Yoder, Stanley Hauerwas and Walter Wink are engaged to explore the meaning of peace and the role of Christian community.

After reviewing all the factors of the above thoughts brief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Christianity need to make diligent effort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violent world and Christian pacifistic principles in the public realm. To achieve this goal, Christian communities are encouraged to promote the public talks and revise the standard of the modern life, and reestablish moral standard in accordance with Christian pacifistic spirit.

**Key words:** Religious Violence, Pacifism, Quaker, Howard Yoder, Stanley Hauerwas

---

## I. 서론

2015년 1월 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에 습격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었던 일본인 인질 두 명이 최근 참수됨으로서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참수 장면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어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살해할 때마다 쿠란(Qur’an)을 인용함으로써 세계에서 벌어지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테러의 원인이 종교에 있다고 보는 시각과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교와 폭력 간의 문제에 관하여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한다. 종교적 맹신이 폭력을 유발하는 비윤리적 규범의 문제를 지적 하면서, ‘종교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sup>1)</sup> 또한 IS와 같은 과격한 무장단체의 폭력성은 이슬람교의 종교적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무관하다는 ‘종교/폭력 무관설’ 견해도 존재한다.<sup>2)</sup> 한편, 서구 사회에서는 자유국가가 형성되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지만, 중동에서는 여전히

- 
- 1) 샘 해리스(Sam Harris),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대니얼 데닛(Daniel Dennett),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 등을 신 무신론자(New Atheists)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비판적이며, 특히 종교로부터 자행되는 다양한 무도덕적,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이다. 신 무신론은 형이상학적 요소, 인식론적 요소, 윤리적 요소로 구성된다. 형이상학적으로 신 무신론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실체를 거부하며, 인식론적으로 종교적 신앙은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윤리적 요소로서, 신 무신론은 굳이 종교나 신적 존재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니체나 사르트르와 같은 역사적 무신론자들과 달리, 종교 자체는 결국 여러 면에서 나쁜 것으로 본다. 참고) James E. Taylor, “The New Atheists,” URL = <http://www.iep.utm.edu/n-atheis/>.
  - 2) 필자는 종교와 폭력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하 ‘종교/폭력’으로 특정하여 사용한다. ‘종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관점은 필자의 관점에서 유형화한 것임을 밝힌다.

신정통치를 표방하기 때문에, 종교-정치간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그 모델이 없는 ‘종교/폭력 무규범’적 상황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sup>3)</sup>

한편, 유대-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와 폭력 사이의 관계를 ‘종교/폭력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sup>4)</sup> 특정한 종교공동체 내의 기본적인 태도나 상황이 전체 종교를 대표할 수 없으며, 단지 각 종교 공동체의 상황으로부터 형성되는 행동양식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폭력성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유일신 종교의 기본 전제가 배타적 진리를 추구함에 있다하더라도 종교 자체가 필연적으로 폭력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과격한 이슬람주의나 유대의 시오니즘, 기독교 근본주의 등은 각 집단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의에 근거한다. 따라서 종교폭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 동기로부터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집단이 폭력의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종교적 의미에 두고 있다면, 그 종교적 행동배경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sup>5)</sup>

한편 다소 급진적인 관점에서는 종교교리 자체가 집단 간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대신 사회적 격변과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억압, 즉 경제-정치적 불평등 구조, 또는 박해와 같은 것들이 집단 갈등으로 연결된다는 ‘종교/폭력 정치설’ 입장이 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며, 폭력에 대한 종교적 개입에 대하여 비판하기 위해서는

3) Karen Armstrong, "The Myth of religious violence," *the Guardian* (Sep.25, 2014), URL =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sep/25/-sp-karen-armstrong-religious-violence-myth-secular>.

4) Robert K. Merton, *The Thomas Theorem and Matthew Effect, Social Forces*, December 1995, 74(2), 409. 토마스 정리의 기본 명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인간이 어떤 상황을 실제로 정의한다면, 그 상황은 그 결과에 있어서 실체가 된다."

5) Hans G. Kippenberg, *Searching for the Link between Religion and Violence by means of the Thomas-Theorem, Method and Theory in Study of Religion*, 22, 2010, 97-115.

먼저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갈등이 전적으로 기층사회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연관하여 발생한다는 입장이다.<sup>6)</sup>

필자가 이 글에서 중시하는 관점은 ‘종교/폭력 세계화’와 기독교의 평화주의에 대한 연관이다. 현대의 종교/폭력은 서구와 비서구의 대립과 저항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평등과 같은 유대/기독교의 종교성과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섞여있는 혼성적 가치관에 대한 저항으로 종교/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특히 세계화의 이면에 있는 급속한 산업화로 말미암은 중동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서구/비서구의 갈등과 에너지 전쟁, 그리고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문화적 영향에 의하여 가족주의가 붕괴되고, 전통 부계사회의 위기에 대한 반발에 종교/폭력의 요소가 개입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따라서 중동을 비롯한 비서구 국가에는 서구의 가치관 유입에 의한 자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주의와 이슬람 종교의 연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 또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와 같은 종교와 폭력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지만, 이 글에서는 (1) 현대의 종교/폭력의 세계화 문제를 살펴보고, (2) 서구 기독교 전통의 비폭력무저항주의에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개념’과 ‘평화주의 원리’를 검토하며, 그리고 (3) 현대의 종교/폭력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평화주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다양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었다. 그럴 때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 입장도 있었고 정당전쟁론에서 폭력을 허용하는 관점과 비슷한 유형에서 폭력을 허용하는 현실주의적 관점도 있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비폭력무저항주의의 관점에서 현대에 부상하는

6) 참고) Karen Armstrong, *Field of Blood: Religion and History of Violence* (New York: Alfred A. Knopf, 2014).

종교/폭력의 문제를 고찰하고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평화의 공공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국제사회에서는 종교와 성불평등과 연관된 종교/폭력의 관심도 매우 높다. 특히 남성중심적 국가 종교와 폭력을 방치하는 종교와 정치적 정당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그리고 다층적 사회 수준에서의 성불평등에 의하여 야기되는 폭력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sup>7)</sup> 다만 이 글에서 이 논의는 제외하고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요인에 국한함을 미리 밝힌다.

그동안 기독교 기독교평화주의에 나타나는 비폭력무저항주의와 현실주의적 관점은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있었지만 각각의 관점이 현대의 종교/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물음과 함께 공공영역에서의 바람직한 기독교평화주의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이 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II. 현대의 종교/폭력의 세계화 문제

종교폭력은 전 세계 역사에 만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서는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서구사회는 종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종교와 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현재 다양한 종교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이슬람교도의 증가로 향후 한국의 종교지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

7) UNRISD(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ligion, Politics and Gender Equality (2007-2009)," URL = <http://www.unrisd.org/research/gd/religionandgender>.

독교계 내에서는 긴장하는 입장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종교/폭력은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잠재적 폭력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종교/폭력은 각 종교전통과 정치, 사회,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의 상호관계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단순히 평화를 추구한다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데, 그것은 종교 경전이나 전통, 역사 등을 통해 보면, 종교는 평화와 폭력에 대해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각 종교마다 자체의 역사와 역동성을 가지며, 폭력이나 평화에 대한 각 종교의 태도는 종교마다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종교에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종교윤리의 애매모호성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각 종교가 평화적 대안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p>8)</sup>

현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폭력에는 ‘시오니즘(Zionism)’과 ‘지하디즘(Jihadism)’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 크다. 일반적으로 시오니즘(Zionism)이라는 단어는 1890년 네이션 번바움(Nathan Birnbaum)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오니즘의 일반적 의미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믿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주권국가를 재건하는 것이다.<sup>9)</sup>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시오니즘에는 자국의 발전 및 이스라엘의 안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일반적으로 시오니즘 또한 그 방법론이나 목적에 따라 우파 시오니즘, 좌파 시오니즘, 종교적 시오니즘, 세속적 시오니즘 등이 있다. 처음부터 시오니즘은 영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세속적·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진다.

지하디즘(Jihadism)은 노력이나 투쟁을 의미하는 아랍어 지하드(jihad)

8) Robert Eisen, *The Peace and Violence of Judaism: From the Bible to Modern Zi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4.

9) URL =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Zionism/zionism.html>.

에 유래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지하드는 자신의 기본적 본능으로부터 내적으로 대항하는 개인적 노력을 의미하며, 이상적으로 지하드는 보다 좋은 이슬람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을 의미한다. 반면, 극단적인 경우,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전쟁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하디스트(jihadist)라는 용어는 1930년대부터 서구 학제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디스트는 폭력적인 수니파 이슬람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하디스트는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h)에 근거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 폭력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세력을 지칭한다.<sup>10)</sup>

결국 시오니즘이나 지하디즘이 과격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민족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인 거주지, 에너지, 그리고 안보와 같은 문제와 직결된다. 물론 종교는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이나 전쟁과는 배치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이슬람교도들에 의한 폭력이 증가되는 이유 이면에는 문화의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가 깊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현대의 종교/폭력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현실은 종교가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과 단체에 조직적 구조와 동기를 제공한다는 의심이 증폭되기에 바람직한 정치 윤리적인 규범이 절실하다.

필자의 주된 관심은 현대의 종교/폭력은 위의 주관주의적 관점들과 더불어 세계 정치적 관점들이 섞여있다는 입장인데, 특히 '종교/폭력의 세계화' 문제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본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9·11 테러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인류역사의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sup>11)</sup> '역사의 종말'이란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역사가

10) URL =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30411519>.

11) 참고)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현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중심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테러는 서구 사회의 세 가지 가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와 유대·기독교, 그리고 자본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에 근거하지만, 그 내용은 기독교 교리에서 종교성을 분리한 것이라고 후쿠야마는 보았다. 또한 이러한 서구적 가치는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연합하여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열차와 같아서 국제사회에서의 9·11과 같은 테러는 이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라고 본 것이다. 경제적인 통합에 뒤이은 정치적 통합은 결국 문화적 통합으로 치닫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폭력을 동반한 종교적 민족주의가 부상하게 되었다는 관점인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서구의 선진 국가들에게서는 전통적인 질서의 붕괴와 범죄율이 치솟았다. 그리고 급속한 가족제도의 파괴로 말미암은 문화의 붕괴 이면에 성혁명과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는데, 이 또한 비서구적 국가들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위협하기 때문에 배타적 민족주의가 등장하였다고 보고 있다.<sup>12)</sup>

필자는 이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결국 서구민주주의와 유대·기독교적 가치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대격변이 이에 저항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와의 연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 종교/폭력의 문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무엇보다도 현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폭력에 종교와 민족주의적 관점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 세계화를 주도하는 선진국형 자본주의

12) 참고) Francis Fukuyama,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1999). 후쿠야마는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의 경우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같은 대 붕괴가 없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있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결혼 생활과 여성의 제한적인 노동의 기회를 지적하였다.

와 이에 대한 비서방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비서방국가의 특정 종교적 가치개념과 종교/폭력이 나타나는 정치 경제적 요소들과 관련하여 폭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인성과 폭력에 대한 합리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폭력을 정당화 하는 폭력의 상징성과 폭력에 대한 종교적 보상관계를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기대한 종교/폭력의 결과가 실패로 끝났을 경우, 그 이후 종교/폭력이 다시 재생산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의 분석은 적어도 기독교평화주의의 관점에서 현대의 종교/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적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비서구적 종교와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 에너지 전쟁과 같은 현대의 정치·경제적 갈등과 세계화와 같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 종교/폭력의 상징성과 정당성을 극복하는 대안적 상징세계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비폭력무저항주의와 같은 기독교평화주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 III. 비폭력무저항주의에서의 폭력과 평화

기독교평화주의 전통에는 크게 ‘현실주의’와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관점이 있다.<sup>13)</sup>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비폭력무저항주의는 현실주의의 정당 전쟁론을 능가하는 관점으로 필자는 이해한다. 기독교현실주의에서는 어거스틴(Augustine)과 아퀴나스(Thomas Aquinas), 그리고 마틴 루터

13) 논자에 따라서는 기독교평화운동 전통을 ‘정당전쟁론’, ‘정의로운 평화운동(비폭력 저항 또는 핵 평화주의)’, 그리고 ‘절대적 평화주의(비폭력무저항주의)’로 보는 관점이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정의로운 평화운동’과 ‘절대적 평화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평화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밝힌다.

(Martin Luther)를 거치면서, 죄에 의한 인간의 도덕성에 근본적 한계를 직시하여 국가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전쟁으로서의 정당전쟁론이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sup>14)</sup> 그러나 현대에서 기독교 문명국인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자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적의 무기를 사전에 제거하는 ‘의지의 전쟁(war of will)’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함으로써 전통적인 방어전이 먼저 타격하는 공격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현실주의에서 용인하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방어전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폭력 사용이 현대의 선제공격형 전쟁에서는 적극적인 폭력으로 바뀌으로써 그 비판이 더하여지고 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비폭력무저항주의는 폭력을 자신의 몸으로 수용하여 폭력을 중지하는 개인적 관점으로부터 이를 초국가적 차원까지 연결하는 공동체적 관점이 있다. 폭력의 이면에 폭력을 유발하는 정신적 세계관을 겨냥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이나 집단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14) 어거스틴은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지상의 평화는 늘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상의 평화를 더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상의 무질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대적인 정의에 불과하다. 그는 진정한 평화란 하늘의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개인의 신앙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지도자에 의한 수행, 국가에 꼭 전쟁이 필요한 원칙과 군인의 평화관, 그리고 전쟁후의 포로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Augustine of Hippo, “Against Faustus the Manichean XXII,” *Augustine: Political Writings* (Micahael W. Tkacz and Douglas Kries, trans, Ernest L. Fortin and Douglas Kries, eds., 1994), 73-79, 221- 222. 아퀴나스는 국가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한다면 교회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는 지상적 과제를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초현세적인 목적을 가진다. 그는 전쟁이 필요한 경우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의 정당한 권위와 전쟁발발의 정당한 사유, 그리고 전쟁을 통한 선의 증진을 중요하게 보았다. Thomas Aquinas, “First Part, Question. 66 - ON THE ORDER OF CREATION TOWARDS DISTINCTION (FOUR ARTICLES),” *Summa Theologica*,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FP.html>. 한편, 루터는 ‘농민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과 세속 정부의 법 사이의 조화를 고민하였다. 인간의 죄악을 정의로 다스리기 위한 세속정부의 필요성과 교회를 통한 영적인 왕국의 건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왕에 대한 순종 사이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하게 한다. Martin Luther, *Luther’s Work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50, 172-173.

의 구원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같이 순교자의 피는 부활을 통하여 보상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몸을 입기 때문에 현실적인 폭력은 장차 임할 거룩한 평화에 굴복하게 된다.

비폭력무저항주의원리는 신약성서와 수도원주의, 그리고 재세례파에 서도 그 내용이 있지만, 근대국가의 권력에 대항한 퀘이커(Quaker)교도와 메노나이트(Mennonite) 전통에서 그 관점이 구체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현대의 하워드 요더(Howard Yoder)와 스탠리 하우어워즈(Stanley Hauerwas)의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비폭력무저항의 원리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저항할 수 없는 허약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폭력무저항주의는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수단으로 악에 대해 저항하며, 평화를 가장한 합법화된 폭력을 간과하고 저항한다. 비폭력무저항주의는 '비폭력'과 '무저항'의 합성어로서 비폭력이 폭력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무저항은 비폭력 저항조차 처음부터 차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다.<sup>15)</sup>

퀘이커 교도에게 '무기소유'는 폭력이다. 따라서 외형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는 그 어떤 전쟁이나 분쟁, 싸움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평화이시며 폭력이나 전쟁과 같은 것은 악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무기를 들어 세상의 왕국을 위하여 싸움이나 전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sup>16)</sup> 퀘이커 교도들은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폭력은 모두 하나님의

15) William Robert Miller, *Nonviolence* (New York: Schocken, 1972), 28.

16) 퀘이커 평화선언 (The Quaker Peace Testimony), "A Declaration from the Harmless and Innocent People of God, Called Quakers, Against All Sedition, Plotters, and Fighters in the World: For Removing the Ground of Jealousy and Suspicion from Magistrates and People Concerning Wars and Fightings," North Pacific Yearly Meeting Faith and Practice 35 (1993). Diana Lee Hirschi, *The Quaker Peace Testimony, Dialogue*, 37 no 2 Sum 2004, 132에서 재인용.

뜻에 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전통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퀘이커의 평화주의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고 수호하는 관점에서 ‘무저항주의’에 가깝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반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폭력적인 공격자들을 진정시키기 이전에 모든 형태의 비폭력적 저항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공격자들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은 자칫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부정의에 굴복하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sup>17)</sup>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폭력의 희생물이 되었을 때에도 공격자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폭력자의 폭력이 그쳤을 때 공격자들에 대한 친절한 행위와 말로 악을 극복한다.

재세례파전통의 메노나이트 평화주의에서도 ‘무기소유’는 폭력이며 ‘무기 없는 삶’을 강조한다. 16세기 이후부터 성서적, 신학적, 윤리적,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 메노나이트 기독교인들의 평화를 정체성으로 확립하였다. 초기 메노나이트 운동에서 비폭력평화주의원리는 교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초기 메노나이트 문헌 어디에서도 교리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평화나 비폭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었다. 메노나이트 평화원리는 ‘무기 없는 삶’을 이루기 위한 덕의 원리를 평화주의에 적용하였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되었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기독교인의 영적 삶과 연합이 된 개념으로 보았다.<sup>18)</sup>

17) URL = [http://www.bbc.co.uk/religion/religions/christianity/subdivisions/quakers\\_1.shtml#h6](http://www.bbc.co.uk/religion/religions/christianity/subdivisions/quakers_1.shtml#h6) 에서 재인용.

18) C. Arnold Snyder, *Anabaptist Origins of Mennonite Commitment to Peace, Vision, Winnipeg, Man*, 14 no 2 Fall 2013, 17-18.

이와 같은 메노나이트의 평화주의 입장은 인간 본성에 대해 자유주의 적이며 낙관주의적 인식을 부정하며, 평화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편에 서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성령의 거듭남,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만 평화는 가능하다. 다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평화에 대한 노력이 따라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믿음의 확증을 통하여 평화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된다. 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평화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체적이다(substantive)이며, 무기 없는 삶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재를 바탕으로 한 책임이 된다.<sup>19)</sup>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에게 있어서 폭력은 불가피하지만, 철저한 개인의 영적 혁명에 의한 비폭력으로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평화의 실현은 국가적 차원의 조직체의 결성 이전에 개인들의 평화 정신에 의한 ‘형제애’가 먼저 선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근대적 세계에서는 각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초국가적 권위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슈바이처는 칸트의 의무론에 근거한 ‘평화’에 주목하였다.<sup>20)</sup> 그는 예언서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신앙적인 소망이 국민의 주권의식으로 신장되며, 아울러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sup>21)</sup>

19) 위의 글, 19.

20) 슈바이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는 에라스무스(Erasmus)와 설리(Sully), 그리고 생피에르(the Abbé Castel de Saint-Pierre)와 같은 이들의 평화 사상이 국가에 의존한 한계가 있음을 지목하면서, 칸트의 에세이 “영원한 평화(Perpetual Peace)”에서 강조된 국민들의 통치와 주권을 통한 평화에 관심을 가졌다. Albert Schweitzer, “Nobel Lecture” 참조, All Nobel Peace Prize Laureates, The Official Web Site of the Nobel Foundation Copyright © Nobel Web AB 2008, Nobel Prize. Org. URL =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http://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

21) Albert Schweitzer, “Nobel Lecture,” URL =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http://nobelprize.org/nobel_prizes/)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2세(Martin Luther King Jr.)에게 폭력은 ‘육체와 정신을 포함하는 악마적 실체’이다. 그는 평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헤겔의 변증법처럼, ‘정’(thesis)이나 ‘반’(antithesis)의 양 극단이 아닌 사랑에 근거한 비폭력 저항의 ‘합’(synthesis)에서 그 원리를 찾았다. 마틴 루터 킹은 기독교의 ‘사랑’이 개인적인 수준이 아닌 사회적 변혁의 요소로 평화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22)</sup> 그에게 있어서 비폭력 운동은 (1) 비겁한 자들의 수법이 아닌 능동적인 저항이며, (2) 비폭력은 적을 파멸 시키거나 적으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지 않고 적의 우정과 이해를 얻으려는 투쟁이고, (3) 악을 범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닌 악의 세력 자체에 대한 것이며, (4) 보복 없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반격 없이 적의 타격을 받아들이는 기꺼움이며, (5)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평화로 저항하며, 그리고 (6) 우주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신념 위에 근거한다. 따라서 루터 킹의 평화주의는 현상적 폭력 이면에 있는 악마적 영적 실체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에게 폭력은 때로 불가피하게 보이지만, 폭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안에 굴복’한다.<sup>23)</sup> 폭력은 하나님의 개입과 전적인 아가페적 순종으로만 중지할 수 있다. 전쟁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이 성경의 관점에서 있을 때 중지할 수 있다. 폭력은 기본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대상을 전제하는 단어로서 폭력의 행사에는 어떠한

---

peace/laureates.

22) Martin Luther King, 홍동근 역, 『自由의 鬪爭』(대한기독교서회, 1967), 112-118.

23) 요더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신정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의 모압과 암몬자손, 그리고 세일산 사람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스라엘은 찬송으로써 연합군을 전멸시킨다. 요더는 피의 전쟁에서도 폭력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성경의 서사가 밝히는 하나님의 행동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나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나 원인이 폭력 자체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요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과 정치학이 비폭력의 당위성을 지지한다고 보며, 기독교인은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요더는 평화를 이룩하는 것(peacemaking)은 어려운 일이며, 몇몇 영웅적인 위인들의 업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평화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virtue)으로서 기독교인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며, 평화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화의 공동체에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요더의 평화주의 사상은 성경적 현실주의(Biblical Realism)으로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윤리, 그리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잘 드러나 있다.<sup>24)</sup> 그는 광야에서의 시험(눅4:1-13)은 경제, 정치, 그리고 종교적 유혹으로서 참된 메시야는 이러한 시험을 현실 속에서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sup>25)</sup> 따라서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평화를 이루는 제자로 거듭난다. 이때 기독교인의 실존은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요일 1:5-7, 3:1-3, 4:17, 벤전1:15-16, 골3:9). 하나님의 본성은 용서와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엡4:32, 골3:13, 마6:12,14-15, 18:32-33)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24)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역, 『예수의 정치학』(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14-27. 'biblical realism'을 '성경적 실재론'으로 또는 '성경적 현실주의'로 번역하느냐의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본 논지에서 처음의 입장은 '성경적 실재론'으로 번역하였다. 그 이유는 요더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더에게 이성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고 자연신학적 섭리 또한 폭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 현실주의의 관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성경적 현실주의'로 해석해도 문맥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25) 위의 책, 27-34.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여야 한다(눅6:32-36, 마5:43-48). 즉, 용서받는 자로 용서하고, 사랑 받은 자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며, 제자 된 이들의 삶인 것이다.<sup>26)</sup> 이렇게 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당하신 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종극적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다.

스탠리 하우어워즈(Stanley Hauerwas)에게 폭력은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폭력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 폭력과 전쟁을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임을 인정한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폭력을 부인하는 것이지만, 전통적인 평화주의와 비폭력 개념으로 현대의 폭력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전쟁의 희생적 특성(sacrificial character)을 예배의 예전적(liturgical)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전쟁이나 폭력의 희생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희생에 반대되는 유비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 필요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세계라는 재단에서 우리 자신이나 타자의 생명을 희생하여 스스로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27)</sup> 따라서 그는 폭력에 대한 대안은 예배로서 기독교 교회의 일차적 책임은 세상을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위짐으로써 교회의 사회 윤리화를 주장한다. 교회 자체가 곧 전쟁으로 피폐해진 세상에서 전쟁의 희생에 대한 대안이며,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용

26) 위의 책, 118-119.

27) Stanley Hauerwas, "Sacrificing the Sacrifices of War," Linda Hogan, Dylan Lee Lehrke ed.,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Peace and Conflict* (Eugene,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09), 86-87.

서를 통하여 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사람의 생존을 위해 칼을 들기를 거부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우리는 죽임으로 생존을 추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sup>28)</sup>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성스러운 소유로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관계의 참된 기준이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친구를 위한 거룩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지 적대자들을 증오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언어를 배우며 세상을 향한 신앙고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sup>29)</sup>

월터 윙크(Walter Wink)는 폭력을 ‘지배체제의 비인격적 실체로서 권세로부터 기인하는 정치적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폭력은 악에 저항하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투적인 비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거룩한 소명을 배신해 버린 세상의 제도와 구조의 실제적 영성을 ‘악마’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배체제란 권세들의 전체 네트워크가 ‘우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라고 정의한다.<sup>30)</sup> 그는 현실의 폭력은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ethos)이며, 현대 세계의 영성(spirituality)처럼 권세를 떠난다고 보았다. 폭력은 심지어 종교의 가면을 쓰고 그 추종자들에게는 죽기까지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다.<sup>31)</sup>

따라서 폭력적 정치 체제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으로서 예수가 제시한

28) 위의 책, 103-104.

29) Dietrich Bonhoeffer, "The Nature of the Church," Geoffrey Kelly and F. Burton Nelson ed. John Bowden trans., *A Testament to Freedom: The Essential Writings of Dietrich Bonhoeffer* (San Francisco: HarperCollins, 1990), 91. Stanley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Bonhoeffer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 (Grand Rapids, Michigan: Brazos Press, 2004), 33에서 재인용.

30) Walter Wink, *Engaging the Powers: Discernment and Resistance in a World of Domination*,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지배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35.

31) 위의 책, 41.

방법을 제3의 길이라 명명하고,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의 주체로서 기독교 인들은 도덕적 주도권을 가지고, 인격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폭력에 조롱과 유머와 같은 창조적 방식으로 맞설 것을 주장한다.<sup>32)</sup> 굴욕과 창피로 인한 자기 비하의 악순환을 끊고, 체제의 불의함을 계속 폭로하며, 억압자가 스스로 회개하도록 폭력적 지배체제를 수치스럽게 하는 동시에, 부당한 법을 위반하고 기꺼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억압자들이 스스로 변화되도록 유도한다.<sup>33)</sup> 월터 윈크는 폭력적 지배 체제 현실에 대한 끊임없이 비폭력적인 저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독교 신학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의한 지배체제의 가치와 악순환을 대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질서와 통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필자는 비폭력무저항주의의 전통에서 폭력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이 원리를 통하여 현대의 종교/폭력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32) 월터 윈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예를 들어 '비폭력 저항'을 주장한다. 첫째, 비폭력 투쟁의 성공 사례로서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가 비폭력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독재를 중단시킨 점, 폴란드의 솔리다리티(solidarity)로 남미의 일곱 개의 정권이 무너졌던 사건, 그리고 1989-90년 14개국의 혁명은 루마니아를 제외하고 비폭력적인 저항이었다는 예를 들었다. 둘째, 예수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는 악에 저항하려는 의지마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비전 투적 저항이다. 예를 들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이대고, 겹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주고, 억지로 5리를 가져다 하거든 10리를 가는 식이다. 셋째, 비폭력은 테크닉이 아닌 원수에 대항하여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이끄는 정의로운 수단이다. 넷째, 비폭력 저항을 통한 혁명이 폭력을 동반한 혁명보다 그 효과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다. Walter Wink, *Jesus and Nonviolence*, 김준우 역, 『예수와 비폭력 저항』(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21-61.

33) Walter Wink, *Engaging the Powers: Discernment and Resistance in a World of Domination*,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지배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295-296.

#### IV. 종교/폭력 세비화에 대한 비폭력무저항주의의 대안적 평화 원리

지금까지 살펴본 비폭력무저항주의의 원리에서 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폭력은 가시적인 무기의 소유와 연관이 된다. 웨이커교도나 메노나이트에서 폭력은 무기이며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접촉마저 금함으로써 '무기 없는 삶'을 신앙의 덕의 원리로 적용하였다. 인간이 죄의 본성상 무기를 들어 악을 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기와 단절시키는 것이 평화의 수단이 된다. 둘째, 폭력은 제도적 차원에서 막을 수 없으며, 신앙을 통한 영적 혁명이 수반될 때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슈바이처와 마틴 루터 킹에게서 폭력은 평화에 대항하는 영적 실체이며, 평화에 대한 믿음으로 실현할 수 있다. 셋째, 폭력은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치 받는다. 요더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렸지만, 부활 하심으로써 이 땅의 목표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성경적 현실주의에 근거한 철저한 제자도의 길만이 평화를 위하여 열려 있다. 넷째, 폭력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적 희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스텐리 하우어워즈는 교회의 교회다움, 즉 예배를 통한 그리스도의 현실(reality)로서 평화 언약의 공동체를 세울 때 폭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섯째, 폭력은 전적으로 정치적 개념으로서 비전투적 폭력으로 세상의 구조적 폭력의 악순환을 중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폭력무저항주의의 장점은 성경적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도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폭력적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다. 특히 폭력에 대한 초기의 수동적 저항으로부터 적극적인

저항을 강조하는 현대의 이론은 정치 경제적 지배체제에 대한 가면을 벗기고 폭력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자아의 영적 혁명과 기독교 공동체의 각성을 요청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다양한 폭력에 대한 저항담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비폭력무저항주의 평화주의가 세계화의 폭거, 특히 종교/폭력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신학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이론이 요청이 된다. 특히 필자가 이 글에서 중시하는 현대 세계화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기독교와 자본주의 가치가 통합된 서구적 문화와 이에 저항하는 비서구적 종교/민족주의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비폭력무저항주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대안적 평화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제사회에서의 제국주의적 정치체제와 경제구조적 악의 실체에 대한 정치적 평화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종교/폭력이 종교와 민족주의가 개입하는 이면에는 한계가 있는 지구적 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전쟁을 통한 재래식 무기의 소모와 신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군산복합체와 석유자원을 둘러싼 세계적 석유기업의 카르텔,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보다는 불가능한 석유자원에 의지하는 현대문명에 대한 각성과 삶의 변화가 요청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비폭력무저항주의가 중시한 ‘무기 없는 삶’과 같은 근본적인 평화원리를 적용하여 ‘석유 없는 삶’, ‘핵 없는 삶’,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삶’, ‘쓰레기 없는 소비생활’과 같은 삶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석유, 핵, 그리고 자원의 소비와 낭비가 전쟁과 폭력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삶의 혁명은 비서구적 민족주의와 종교와의 충돌을 완화하게 될 것이며, 현대 문명이 보다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나쁜 국가와 국가, 그리고 종교와 종교 간에 갈등과 분쟁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많은 단체들의 노력이 있지만 공공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위세가 약소국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평화윤리는 현재의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서구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그리고 기독교의 공모로 오해되는 ‘자본과 상품의 세계화’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분배, 사랑의 고귀한 정신문명의 세계화’에 기독교평화운동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비폭력무저항주의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원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현대 악의 구조는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세계화는 ‘악의 지배의 세계화’와 다름이 아니다. 파편화 되어있는 개인이 거대한 세계적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는 무모한 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성례전적 예전을 사회화하는 비폭력무저항의 평화주의 운동은 돈과 권력을 우상화하는 체제를 깨뜨리는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형제자매와의 연대를 통한 비전투적 저항운동 또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적 구조는 철저하게 권력을 탐하지 않고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섬김의 구조로 돌아야 한다. 아울러 교회의 연대를 통하여 사회 안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는 형제애에 근거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신장하고, 공공영역에서의 교회의 책임과 활동이 요구된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평화를 위한 신학적 사명이라는 목표가 비폭력무저항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필자는 중시한다. 종교/폭력 세계화와 관련하여 수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아가페적 사랑이 해답이라는 것은 신학과 신앙의 주체성이다. 물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당장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부당하게 위협받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당장 희생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 중간에 서서 어정쩡한 입장의 평화주의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반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적 악이 당장 자신에게 가시적인 폭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은 폭력의 예비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폭력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은 나름대로 도덕적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폭력을 용인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폭력무저항주의가 대안으로서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식을 통하여 세상의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서는 현실적인 폭력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폭력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폭력에 저항하는 실천력이 요구된다. 과거 비폭력무저항주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와 기층공동체의 억압과 저항으로 억압을 받았지만, 이제는 세계화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국과 맞서는 신앙의 운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평화를 빼앗긴 사람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고난을 자초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때로 종교, 이데올로기,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적 체제 간 대화와 공공의 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현대의 종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더 종교간 더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와 이슬람권의 평화를 위한 소통이 필요하며, 서구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기독교의 연대로 비쳐지는 세계화의 폭거에 기독교평화주의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다 평화를 위한 실천적인 운동을 펼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의 불의한 정치경제적 구조에 뛰어들어가 공공정책을 바꾸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교

회로서의 사회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군사 및 복지정책, 국제사회에서의 핵과 에너지의 사용, 그리고 농수산물의 개방에 대한 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과 군축협상 등을 통한 평화정책의 수립이 없이는 폭력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폭력의 반대는 평화 보다는 권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평화주의가 한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권력이 폭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운 권력을 만드는 정치참여의식의 신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신앙인의 영적혁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도의 정신이 자리 잡아야 된다. 공공영역에서 폭력의 재생산을 중지하기 위한 노력은 또 다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치적 구조라는 것이 ‘권력에의 의지’만이 작동하여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은 집단과 개인의 이합집산임을 전제할 때, 순수한 평화주의적 운동력으로 기층정치체제의 권력에 관한 이익을 넘어서는 일이야말로 제자도의 정신이 필요하다. 모든 크리스천이 정치인이 될 수는 없지만, 비폭력무저항과 같은 평화주의 정신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절실한 사회이다. 이를 위하여 신앙의 영적혁명을 위한 교회지도자의 각성과 교회 공동체의 진리를 향한 교회다움,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현대의 소비문명을 바꾸는 생태중심적인 삶과 고통 받는 이웃을 배려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현대의 종교/폭력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유대·기독교의 복합적인 가치가 섞여있음을 앞에서 짚어보았다. 이는 종교의 상징세계가 폭력을 유발하여 테러를 부추기어 전지구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적 상징체계가 폭력을 정당



화하여 폭력의 실패는 ‘순교’가 되고, 폭력의 성공은 ‘우주전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돌진하듯이 생명의 죽임으로 치닫는 종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살림의 해방적 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sup>34)</sup> 이와 같은 영성적 분별력의 선행조건은 ‘정화(purification)’이다. 무한한 지배 욕과 진정한 겸손을 구별하고, 폭력적인 권력과 권위의 차이를 분별하고, 묵인과 순종의 차이를 비판할 수 있는 진정한 영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서적 실재론에 근거한 영성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이 세상 안에서 사랑으로 폭력을 극복하여 나가는 길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그 어떤 정치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평화를 위한 제자도의 길이 해방적 영성과 연관이 된다.

## V. 결 론

현대의 종교/폭력과 관련하여 신 무신론자들의 ‘종교무용론’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이들은 종교 자체가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보지 않으며, 종교적 행위나 의식은 철저하게 현대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긴다. 이들은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테러와 자살 폭탄, 명예 살인과 같은 종교재판, 종교적 전쟁, 그리고 마녀사냥 등은 종교적 의식과 교리가 사회에 미치는 가장 폭력적인 예라고 강조하면서, 종교는 ‘신앙에 기댄 악(evils on faith)’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35)</sup>

이와 같이 현대 인류문명이 처한 폭력의 현실에서 필자는 기독교 비폭력무저항주의의 아가페적 사랑과 이에 근거한 운동이 폭력을 이기고 세

34) J. B. Libanio, *Spiritual Discernment and Politics*, 박종열 역, 『정치와 영성의 해방』(문학과 지성사, 1990), 12.

35) James E. Taylor, “The New Atheists,” URL = <http://www.iep.utm.edu/n-atheis/>.

상을 바꿀 수 있는 정신이 된다고 해석한다. 말씀 중심의 본질을 회복하고, 권력을 지양하고, 섬김의 공동체 윤리를 위하여 교회가 헌신하며, 세상의 공공영역에서 책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비폭력무저항주의의 평화원리는 우리에게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우쳐주며 혼탁한 세속의 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미가 4:3)” 폭력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평화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Lewis, C. S., *The problem of pain*, 이종택 역, 『고통의 문제』(홍성사, 2002)
- Libanio, J. B., *Spiritual Discernment and Politics*, 박종열 역, 『정치와 영성의 해방』(문학과 지성사, 1990)
- Wink, Walter, *Engaging the Powers: Discernment and Resistance in a World of Domination*,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지배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 Wink, Walter, *Jesus and Nonviolence*, 김준우 역, 『예수와 비폭력 저항』(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 Yoder,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역, 『예수의 정치학』(한국기독교학사회출판부, 2007)
- All Nobel Peace Prize Laureates, The Official Web Site of the Nobel Foundation Copyright © Nobel Web AB 2008, Nobel Prize. Org. URL =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http://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
- Armstrong, Karen, “The Myth of religious violence,” *the Guardian* (Sep.25, 2014), URL =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sep/25/-sp-karen-armstrong-religious-violence-myth-secular>.
- Armstrong, Karen, *Field of Blood: Religion and History of Violence* (New York: Alfred A. Knopf, 2014).
- Aquinas, Thomas, “First Part, Question. 66 - ON THE ORDER OF CREATION TOWARDS DISTINCTION (FOUR ARTICLES),” *Summa Theologica*,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FP.html>.
- Augustine of Hippo, “Against Faustus the Manichaeon XXII,” *Augustine: Political Writings* (Micahael W. Tkacz and Douglas Kries, trans, Ernest L. Fortin and Douglas Kries, eds., 1994), 73-79, 221- 222.
- Eisen, Robert, *The Peace and Violence of Judaism: From the Bible to Modern Zi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 Fukuyama, Francis,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1999).
- Hauerwas, Stanley, "Sacrificing the Sacrifices of War," Linda Hogan, Dylan Lee Lehrke ed.,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Peace and Conflict* (Eugene,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09).
- Hauerwas, Stanley, *Performing the Faith: Bonhoeffer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 (Grand Rapids, Michigan: Brazos Press, 2004).
- Kippenberg, Hans G., *Searching for the Link between Religion and Violence by means of the Thomas-Theorem, Method and Theory in Study of Religion*, 22, 2010.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 Merton, Robert K., *The Thomas Theorem and Matthew Effect, Social Forces*, December 1995, 74(2).
- Miller, William Robert, *Nonviolence* (New York: Schocken, 1972).
- Schweitzer, Albert, "Nobel Lecture,"  
URL =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http://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
- Snyder, C. Arnold, *Anabaptist Origins of Mennonite Commitment to Peace, Vision, Winnipeg, Man*, 14 no 2 Fall 2013.
- Taylor, James E., "The New Atheists,"  
URL = <http://www.iep.utm.edu/n-atheis/>.
- UNRISD(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ligion, Politics and Gender Equality (2007-2009),"  
URL = <http://www.unrisd.org/research/gd/religionandgender>.

논문투고일: 2015. 06. 21.

심사개시일: 2015. 07. 13.

게재확정일: 2015. 08. 07.

---

• 국 문 초 록 •

---

2015년 1월 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에 습격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최근에는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었던 일본인 인질 두 명이 참수됨으로써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살해할 때마다 쿠란(Qur'an)을 인용함으로써 세계에서 벌어지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테러의 원인이 종교에 있다고 보는 시각과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종교/폭력에 대한 비폭력무저항적 평화주의를 고찰한다. 특히 현대의 종교/폭력은 서구와 비서구의 대립과 저항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며 특히 세계화의 이면에 있는 급속한 산업화와 중동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서구/비서구의 갈등과 에너지 전쟁, 그리고 서구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 붕괴와 전통 부계사회의 위기 등도 그 원인이라고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중동을 비롯한 비서구 국가에는 서구의 가치관 유입에 의한 자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주의와 종교의 연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해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종교와 폭력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지만, 이 글에서는 (1) 현대의 종교/폭력의 세계화 문제를 검토하고, (2) 서구 기독교 전통의 비폭력무저항주의에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개념’과 ‘평화주의 원리’를 살펴봄, 그리고 (3) 현대의 종교/폭력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평화주의 대안을 제시한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었다. 그럴 때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적 입장도 있었고, 정당전쟁론에서의 폭력 허용과 같은 관점에서 폭력을 용인하는 현실주의적 관점도 있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비폭력무저항주의의 관점에서 현대에 부상하는 종교/폭력의 문제를 고찰하고,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평화의 공공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종교폭력, 비폭력무저항주의, 세계화, 하워드 요더, 스탠리 하우어워즈

---